

GLOBA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21 WINTER Vol. 113

HUFES

Cover Story

HUFS Awards 시상식

Special Theme

위드 코로나,
HUFS가 준비하는 2022년

HUFS Topic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 성료

HUFS Inside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현실 속에서
45억 규모 사업 수주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17만 외대 동문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이 만나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1 WINTER Vol. 113

위드 코로나, HUFS가 준비하는 2022년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HUFS Awards 시상식
- 04 **Special Theme** 위드 코로나, HUFS가 준비하는 2022년
- 06 **Theme Interview** 한국외대 개교 67주년 HUFS Award 수상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영어 73
- 12 **HUFS Interview** 인문학자의 연구, 그 너머 이성하 도서관장·ELLT학과 교수 / 안규동 박사
봄을 기다리는 HUFSSan에게 이희성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장·행정 89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양송희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글로벌스포츠산업학 08
- 18 **HUFS Inside**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현실 속에서 45억 규모 사업 수주 윤성우 지식출판콘텐츠원장·데이터센터장
신선호 지식출판콘텐츠팀 팀장 / 한승희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통번역대학원 특임교수
- 22 **Global Memoirs** 잊히면 안 되는 기억, 잊을 수 없는 경험 - '2021년 UN참전국 벨기에 방문 비전캠프' 참가 후기
신윤규 아랍어 16
- 24 **I am HUFS** 글로벌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지름길 백재승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사업단장·경상대학 부학장
- 26 **Global Issue** 세계는 지금 ESG 열풍! 유태영 경영대학 교수

HUFS NEWS

- 30 **HUFS Topics** 한국외대, 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 혁신 성과
-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및 3개년 종합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달성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 성료
한국외대, 권순한 소이사장 회장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김상국 비타민하우스(주) 대표,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34 **HUFS Today**
- 38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48 **CUF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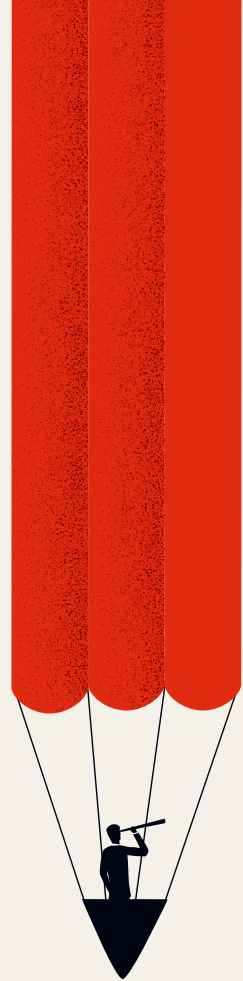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HUFS Awards 시상식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10일(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개교 67주년 및 글로벌캠퍼스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참석 규모를 최소화해 마련한 행사로, 연혁 보고에 이어 김종철 이사장, 김인철 총장의 기념사와 양인집 총동문회장, 김수홍(영어 81)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메인 행사로 열린 HUFS Awards 시상식에서는 '개교 67주년 HUFS Award'에 송용덕(영어 73)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글로벌캠퍼스 41주년 HUFS Award'에 김상국(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84) 비타민하우스(주) 대표이사가 선정돼 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위드 코로나, HUFS가 준비하는 2022년

HU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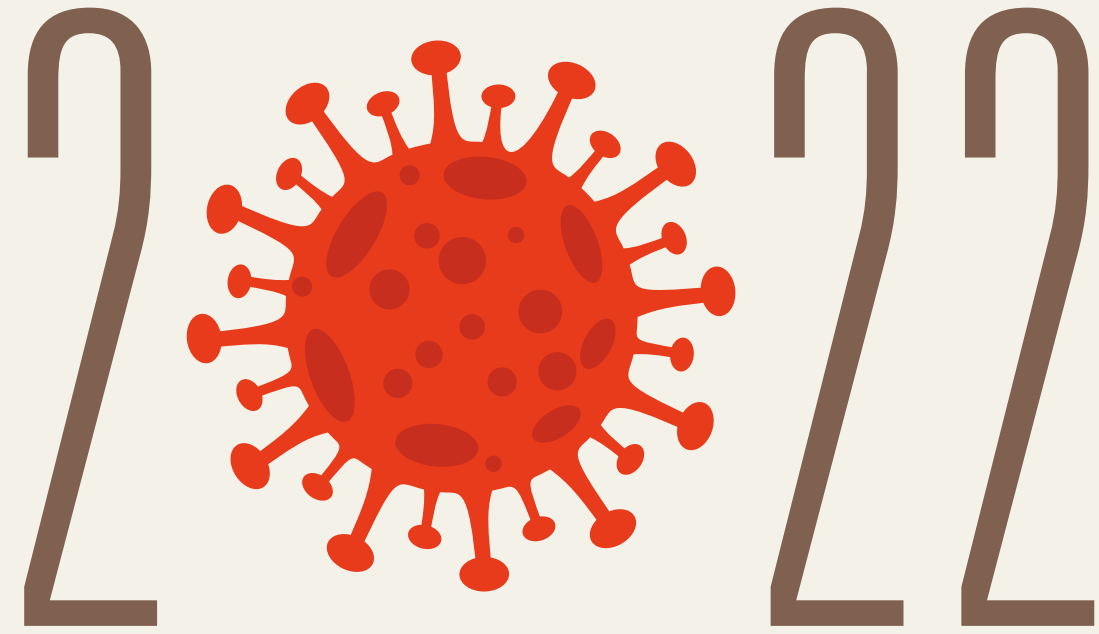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코로나19의 여파,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2022~2024년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전반의 변화는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부가 국민과 함께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대학도 동참해야 한다. 한국외대는 마주한 변화의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데이터로 준비하는 대학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변화의 물결에 대학의 미래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혁신의 길이 바로 데이터에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2021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선정됐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혁신 캠퍼스'를 송도에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사이언스학부, AI융합전공 등 첨단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부적응 학생 지원 방안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적잖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심리센터는 지난 11월 30일 (화)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컨퍼런스룸 등을 통해 심리토크 콘서트 '모여봐요 힐링의숲'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및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창업 육성 방안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취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취업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진로취업지원센터가 해마다 1, 2학기에 진로탐색학점제를 열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과별로 1~2명씩 있는 진로 취업 전담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한다.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11월 말에도 '2021학년도 창업아이디 어경진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이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방안

우리 대학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2014년 본교와 분교가 통합된 새로운 외대가 출범한 이래, 미래형 융복합 종합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본·분교 통합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신설 융합인재대학(인제니움칼리지)의 교육 모델이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리 대학의 신(新)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융합인재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 설계하는 혁신적인 모듈형 교육과정이 도입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적합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영어 73

한국외대 개교 67주년 HUFS Award 수상

한국외대 개교 67주년 기념식에서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이 HUFS Award를 수상해 주목받았다. 호텔롯데 원년 멤버로 시작해 40년 넘게 한 길을 걷고 있는 그가 기업가로서의 삶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었다.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기록 예찬

지난 11월 10일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교 67주년 기념식’에서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이 HUFS Award를 수상했다. 모교에서 직접 상을 받은 소감이 특별할 것 같았다.

“먼저, 한국외대의 개교 6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교에서의 배움은 제가 기업가로서 필수적인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수상은 그 어떤 상보다 제게 더욱 뜻깊었으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도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용덕 부회장은 호텔롯데 원년 멤버로 시작해, 2011년 러시아 롯데루스(RUS) 대표, 2012년 호텔롯데 대표이사 등을 맡아 호텔롯데를 세계적인 호텔·서비스 체인으로 견인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국내 최고 층인 시그니엘서울 역시 송용덕 부회장의 작품이다. 올곧은 열정으로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생애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뜻도 있지만, 저는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글로 적으면 그만큼 성공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10년 단위로 나누고, 그다음 1년 단위, 월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죠. 생애 설계의 큰 틀을 마련해 놓고 계획이 바뀌거나 이룬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가 ‘뚜렷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로 인생 계획을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 길만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심장부에 들어선 롯데호텔 모스크바

40년 넘게 기업가로 살아가고 있는 송용덕 부회장. 기업가로서의 지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1979년부터 롯데호텔의 성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롯데호텔은 2010년 아시아 호텔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개관하며 한국형 호텔 서비스를 해외에 진출시킨 교두보로 평가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의 일이 기업가로서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에 러시아 심장부에 문을 연 롯데호텔 모스크바는 부지 매입에서부터 설계, 시공, 직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토종 호텔 브랜드의 기술과 노하우로 완성해 나가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저는 얼음장 같은 러시아 특유의 호텔 서비스가 익숙했던 직원들에게 파스함과 배려가 스며든 한국 특유의 섬세하고 친절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롯데호텔 모스크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여행 전문지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가 선정한 ‘러시아 베스트 호텔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일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뉴노멀 시대,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 대학도 이에 대응하느라 무척 분주한 모습이다. 이 시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지에 대해 송용덕 부회장이 인상 깊은 답변을 들려주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서 기업 내 ‘소통’과 ‘공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도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으로 일하는 방식은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과 조직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수직적 조직문화는 변동성이 적은 사회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유연한 기업문화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소통과 공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송용덕 부회장은 이런 세상에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모교 후배들에게 기업가로서, 선배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남겼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인재가 더욱 중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영역을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도전은 분명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는 말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실패 속으로 몸을 던지세요. 성취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며,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성공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와 소통하는 데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사회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한국의 대의 인프라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게 지주사 대표로서 최선 다할 것

송용덕 부회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동문들의 업적과 성과가 뛰어난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외대 졸업생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그동안 외국어와 지역 연구를 토대로 각자의 전공을 충실히 이수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한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98개국 534개 대학과 교육 교류 협정을 맺고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 송용덕 부회장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롯데는 올해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룹이 사회에 기여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대면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 상황으로 인해 팬데믹 국면에서 타격을 받았지만, 사업 자회사들이 성장 동력을 굳건히 하고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서 슬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주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도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영역을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실패 속으로 몸을 던지세요.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와 소통하는 데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사회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한국외대의 인프라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H

U



HUFS INTERVIEW

인문학자의 연구, 그 너머
이성하 도서관장·ELLT학과 교수 / 안규동 박사

봄을 기다리는 HUFSan에게
이희성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장·행정 89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양승희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글로벌스포츠산업학 08



F

S

한국외대 ELLT학과 이성하 교수와 안규동 박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과학계의 저명 학술지인 <Nature>에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성하 교수와 안규동 박사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의 마티너 로비츠 교수가 이끄는 언어고고학 연구팀의 유라시아대륙에 분포한 언어의 확산을 다룬 논문 ‘Triangulation supports agricultural spread of Transeurasian languages’에 공동저자로 참여했고, 이 논문은 트랜스유라시아어의 확산이 농업의 확산에 따른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크게 주목받았다.

인문학자의 연구, 그 너머

이성하 도서관장·ELLT학과 교수
안규동 박사



- 논문이 <Nature>에 게재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론언어학을 하는 인문학자로서 <Nature>처럼 저명한 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성과를 내 우리 외대 커뮤니티 전체가 기뻐할 소식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고, 또 ELLT학과와 동료학자와 함께 참여해 이론 성과여서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 논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번 연구는 고고학, 고대 유전생물학, 역사언어학 등 3개 차원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삼각검증법을 통해서, 언어의 확산이 농작물의 확산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255개 유적지의 유물과 농작물의 탄소 연대측정 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 분석하고, 유전생물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인들의 유해에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각 지역에서 채취된 유전자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언어학자들은 이 지역 100여 개의 언어에 나타나는 250여 개의 기초 개념들 어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언어학 분야에 참여했고, 주로 한국어의 언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언어의 옛날 모습은 방언에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안규동 박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방언 정보를 수집했고, 저는 학술자료를 이용해서 고대와 중세 한국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약 9000년 전 중국 동북부의 요하(遼河)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트랜스유라시아 공통 조어의 사용자들이 초기 신석기 시대부터 동북아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북쪽, 서쪽으로 이동해 시베리아와 스텝 지역으로 확산했고, 동쪽으로 이동해 한국과 일본에 이르렀음을 밝혀냈습니다.

- 학계에서 ‘트랜스유라시아 언어의 확산이 농업의 확산에 따른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시아 언어들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학설이 없었고,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언어가 확산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유목민 가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약 3000~4000년 전 동부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언어가 확산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는 그보다 훨씬 전인 약 9000년 전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 하던 농경민들이 초기 신석기 시대부터 동북아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해서 시베리아와 스텝 지역으로 확산했고, 또 한편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국과 일본에 이르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즉, 트랜스유라시아 언어의 기원에 대해 발원지, 연대, 주체 등을 밝혀낸 것이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입니다.

- 아직 기억에 남거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무엇입니까?

안규동 방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국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언어자료를 수집했는데, 수집을 마친 시간이 너무 늦거나 근처에 묵을 숙소가 없어서 여러 차례 차에서 잠을 청한 기억이 납니다. 현재 방언 자료와 서적이 많지만 살펴본 결과 방언 예시의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용례도 많지 않아서 각 지역의 방언 전문가와 민속학자, 인간문화재 전승자, 현지 거주민을 직접 찾아가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방언을 수집할 때는 새터민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과도한 인터뷰 비용을 요구해서 당황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성하 언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정 자료는 찾아내기 무척 어렵죠.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성과가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번 논문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어의 기원과 트랜스유라시아어의 시작과 확산에 대한 것을 증명한 것으로서 언어학사 및 국어사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이정표적인 연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언어학자로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언어학 연구와 교육에 있어 대표적인 기관으로 주목받는 한국외대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언어학적 전문성을 널리 보여 주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이성하 이번 연구를 통해 언어학적 연구가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문학적 성격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연구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석학들과 협동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규동 막스플랑크 인류사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다른 연구 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도 이성하 교수님과 해외 석학들과 협동연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HUFSSan에게

이희성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장·행정 89

- 현재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 지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은행원으로서 기업 고객과 학교 고객, 일반 개인 고객에게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고객은 외대 학생들과 교수님들, 교직원분들입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 아직 기억에 선명한 외대 재학시절 추억은 무엇입니까?

외대 재학시절에 국악 동아리 ‘얼소리’에서 활동한 것이 큰 추억입니다. 저는 국악 중에서도 정악을 했습니다. 정악은 주로 악기를 다루는 활동으로 제 담당은 피리였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의 국악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활동해서 엄청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1~2학년의 대부분을 얼소리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3~4학년 때는 지금의 근로장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 조교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제 담임 교수님이 김인철 총장님이셨습니다.

-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은행에 외대 졸업생이 300~4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웃음). 모교 지점에서 모교와 한뜻으로 모교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5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는데, 우리은행과 외대는 현재 ‘100년 연속(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대의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전속 계약을 생각해냈고, 은행장님과 외대 김인철 총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상호 간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외대는 같이 운영하는 공동체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외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제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 우리은행이 은행 부지를 외대에 기부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외대 글로벌홀 위치에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산업법상 은행이 건물의 2분의 1을 점유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1층은 우리은행으로 사용하고, 2층은 비어 있었죠. 저는 우리은행 자리에 외대와 함께 큰 빌딩을 세운 후 일부는 우리은행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대가 활용하는 식으로 협업하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은행장님과 김인철 총장님께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 동문 입장에서 외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를 희망합니까?

외대는 오래전부터 특수성을 탐구하는 집단으로 통했습니다. 또한 외대 학생들은 외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수성과 외국어, 지역 연구 이 세 가지가 다른 대학은 따라올 수 없는 외대만의 강점인 셈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외대의 강점을 살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좀더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외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기 꿈꾸는 모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후배들이 자신의 가치관 또는 인문학적 교양을 위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야 가능한 건데, 그러기에는 대학생 시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을 아껴 치열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는 선이 넘었는데, 저에게 1년은 50분의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0.2인 거죠. 대학생에게 1년은 20분의 1이나 마찬가지로, 숫자로 따지면 0.5입니다. 저와 대학생 여러분의 시간 중 누구의 시간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우리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지점 지점장으로서 외대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외대의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대 후배들이 우리은행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상시 습작하는 것을 책으로 엮을 생각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인생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김남일 선수,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전국여자대학 축구대회,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EPL 토트넘 핫스퍼, 한국프로축구연맹까지, 그녀의 삶은 축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에 근무하는 양송희 동문을 만났다.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양송희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글로벌스포츠산업학 08

-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주시요.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홍보팀처럼 저희 회사인 연맹의 사업을 알리거나, K리그 전반, 또 K리그에 속한 22개 구단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도자료 작성, 미디어 행사 기획, 언론사 응대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월드컵, 김남일 선수, 전국여자대학 축구대회, 인천유나이티드, 토트넘 핫스퍼, 한국프로축구연맹까지, 지금까지의 삶은 축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축구에 열정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당시 축구에 매력에 푹 빠지게 됐어요. 특히 김남일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K리그를 보러 다녔어요. 그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크면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생각은 변함없었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직업과 대학 정보를 찾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외대에 국제스포츠레저학부(현재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가 신설된다는 것을 알았고, 대학 입시를 치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축구와 관련된 인생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 같아요.

흔히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남겨둬야지 일로 하면 싫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구가 더 좋아졌거든요. 직접 일을 하다보니 축구 팬의 입장일 때보다 축구를 보는 시야도 더 넓어졌고, 그래서 축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또 단순히 꿈꾸던 일을 실제로 하게 됐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 축구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국 토트넘 핫스퍼 리테일 스토어의 유일한 한국인 직원으로 일하던 때,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매 경기마다 한국인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중에는 전북 머플러, 서울 유니폼, 수원 모자 등 K리그 관련 용품을 착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마다 반가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제가 일했던 인천 팬은 안오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어떤 남자 분이 인천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거의 소리를 지르며 인사했죠. 그 분 역시 저를 보고 반갑고 신기한 마음에 서로 명함을 교환한 채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반년 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연히 그 인천 팬분이 기사를 보고 연락해 식사 자리를 갖게 됐어요. 그 분이 식사할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다녀온 뒤 지인들한테 토트넘에서 인천 구단 직원이었던 분을 만났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송희 씨 인터뷰를 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때 말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기사 링크를 보내줬죠. 그랬더니 다들 뭐랬는지 아세요? ‘이분이 여자였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별을 얘기 안했었는지 다들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동안 제가 축구를 사랑하면서 이 업계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번도 제 성별이 걸림돌이 됐거나 고민의 이유가 된 적도 없었지만, 이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 모든 경험을 한 제가 모두의 편견을 깨고 여자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대학도 남초 학과를 졸업했고, 지금 하는 일도 남초 산업이지만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씩씩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라는 힘을 줬답니다.

- 지난 8월에 펴낸 책 「저질러야 시작되니까」를 통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창 시절 축구 관련 직업을 꿈꿨을 때, 관련된 책이나 정보가 없어서 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축구 산업에서 일하게 되면 제 직업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니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영국에서 일할 때나, 연맹에 근무하는 현재까지 블로그에 틈틈이 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게 책을 쓸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책 소개를 하자면 제 에세이는 ‘저질러야 시작되니까’라는 제목에 걸맞게 축구라는 꿈을 향해 저질렀던 수많은 도전들과 이를 통해 스스로 깨달은 에피소드와 생각들이 생생히 담겨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비단 축구 얘기뿐만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 도전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한 사람의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 기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른 살에 5년 넘게 다니던 직장 인천 유나이티드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워홀)를 떠나게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남들은 안정을 선택하는 나이에 타국에서 모험같은 삶을 시작한다는 게 참 무모한 선택이기는 했어요. 제 주변에 30대에 워홀을 간 사람도, 또 워홀로 축구 관련 일을 한 사람의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들도 거의 없었죠. 하지

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도전했죠. 누구에게나 처한 상황도, 갖고 있는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해라, 저질러라 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질렀던 용기를 참고해서 조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 제목처럼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시요.

저는 장기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라, 아직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사랑하는 축구와 관련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어요. 또 아직은 이 업계가 여자가 많이 없고, 또 오래 일하는 여자는 더더욱 없지만 저같은 여자도 보란 듯이 축구 산업에서 오래오래 일하면서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요.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45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주목받았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현실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윤성우 원장과 신선호 팀장, 한승희 책임연구원을 만나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현실 속에서 45억 규모 사업 수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코로나19와 대학의 위기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올 한 해 4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윤성우 원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려주었다.

“출판 분야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어학 교재 제작과 편집 역량, 국내 최고 어학 연구팀의 역량이 더해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관련 분야는 지식출판콘텐츠원과 우리 대학에서 보유한 어학 관련 데이터, 올해 발족한 데이터센터의 우수한 연구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 정책 기조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이중 세부 과제 2건을 수주해 한창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다국어(한-영, 한-중) 음성 데이터 구축 과제는 일상생활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구사되는 외래어 및 관용적 표현이 포함된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술 연구와 산업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1만9000시간의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국어(한-중, 한-일, 한-독, 한-불, 한-서) 구어체 번역 말뭉치 데이터 구축 과제는 비표준어로 구성되는 일상생활과 구어체 말뭉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상황별 신조어, 약어, 은어, 관용어 등 기존 번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을 주로 다룹니다.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에 적용해 번역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총 600만 문장의 말뭉치 데이터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승희 책임연구원의 말이다. 2건의 과제 모두 데이터 수집, 가공, 정제, 검수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목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 인력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윤성우 지식출판콘텐츠원장·데이터센터장

신선호 지식출판콘텐츠원 팀장

한승희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통번역대학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학당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사업 수주

지식출판콘텐츠원의 또 다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어 교육용 딥러닝 Affective Virtual TA 서비스 개발’, 세종학당재단의 ‘사이버 한국어 초급·중급 익힘책 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의 ‘동아시아 시민교육 다국어(중·일·러·베·태) 수업 동영상 연구 개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신선호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2단계 1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용 딥러닝 Affective Virtual TA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정서적 표현도 고려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해당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학습 현황이나 학교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학습 지원 등을 통해 학습 성취도 향상을 제공하려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챗봇의 뼈대가 나온 상태며, 이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한 ‘사이버 한국어 초급·중급 익힘책 개발’ 사업은 시중에서 통용되던 ‘사이버 한국어 초급·중급 교재’의 익힘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도 자가 및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각 언어의 원고 집필과 교정·교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 발주한 ‘동아시아 시민교육 다국어(중·일·러·베·태) 수업 동영상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다국어 수업 동영상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과 다국가 가정이 지속해서 증가해 한국 학생들의 동아시아 시민의식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개 언어의 수업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판 분야는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어학 교재 제작과 편집 역량, 국내 최고 어학 연구팀의 역량이 더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야는 지식출판콘텐츠원과 우리 대학에서 보유한 어학 데이터 데이터센터의 우수한 연구진, 정부 정책이라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 봅니다.”

윤성우 지식출판콘텐츠원장

대학 본연의 기능 유지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대학의 여러 위기 등 상황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는지 궁금했다.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위기’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회자돼 왔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한다고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까지 변하지는 않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와는 스마트 디지털 캠퍼스를 구현하고 이를 발판 삼아 공동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켈터랩스와는 지난 10월에 인공지능 기반 언어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승희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

대학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수주하려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온라인 학습, 한류 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 수주 준비와 더불어, 시대 상황에 요구되는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우 원장의 말에 이어 한승희 책임연구원도 말을 꺼냈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올해 업계에서 인정받는 외부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와는 스마트 디지털 캠퍼스를 구현하고 이를 발판 삼아 공동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켈터랩스와는 지난 10월에 인공지능 기반 언어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기업 외에 외부 기업에서 바라보는 한국외대의 잠재성은 무한합니다. 인공지능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자연어 처리인데, 우리 대학에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언어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외대를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협업에 따른 어려움 있지만 원활히 수행하려 노력

현재 진행하는 있는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사업은 교내외의 다양한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따를 터였다. 윤성우 원장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식출판콘텐츠원과 교내외 기관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에 대해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고,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소통은 물론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선호 팀장이 여러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수주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인 산학협력단의 기준이 학교의 규칙과 규범보다 보수적이라 그에 따른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달리 보면 장점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책임연구원도 말을 보탰다.

“올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한국외대만의 플랫폼 또는 저작 도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학교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완전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및 데이터 생산할 것

그렇다면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 윤성우 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수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답했다.

“출판 분야의 경우,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및 인공지능 관련 사안은 이슈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역량과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수행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관련 분야와 출판 분야를 접목해 향후 추진할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지식출판콘텐츠원은 기존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축적한 언어적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새롭게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만의 특별한 교육 콘텐츠와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과 사업 수주에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윤성우 원장의 말에 이어 신선호 팀장이 2022년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올해 지식출판콘텐츠원이 낸 가장 큰 성과는 데이터 분야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 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활동 계획이자 바람입니다.”



“올해 지식출판콘텐츠원이 낸 가장 큰 성과는 데이터 분야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 데이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활동 계획이자 바람입니다.”

신선호 지식출판콘텐츠팀 팀장

잊히면 안 되는 기억, 잊을 수 없는 경험

신윤규 아랍어 16



지난 11월 22일(월)부터 27일(토) 5박 6일 일정으로 벨기에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주관 ‘2021년 UN참전국 벨기에 방문 비전캠프’에 한국외대에서는 아랍어과 16학번 신윤규 학생을 포함해 11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2021년 UN참전국 벨기에 방문 비전캠프는 6.25 전쟁 참전 70주년 및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이해 참전국 정부의 공헌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한-벨기에 학생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벨기에 제3공수대대 방문

이번 비전캠프에서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방문, 제3공수대대 방문, 참전용사 초청 위로연 등을 진행했다. 벨기에 제3공수대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다. 우리는 이곳 참전비를 찾아가 참배를 한 후 부대를 견학했다. 이날 벨기에 참전용사 협회장님을 처음 뵈었다. 협회장님은 부대 안에 있는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당시의 경험을 말씀해주셨다. 전시장에는 전투가 벌어졌던 많은 지역의 한국 지도와 디오라마(diorama)가 전시돼 있었다. 먼 유럽 땅에서, 이국적인 발음으로 듣는 한글 지역명은 낯설었다. 협회장님은 당시의 크고 작은 여러 전투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어느 마을, 어느 산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실 때 비로소 낯선 나라에 찾아와 싸운 젊은 참전용사분들의 삶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이, 국적 다른 학생들이 함께 만든 위로연 공연

참전용사 초청 위로연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감사를 전하는 무대였다. 위로연은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는 벨기에 참전용사 협회장님, 주벨기에 대사관 대사님, 국가보훈처 차관님의 말씀이 있었고, 2부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한국 학생과 벨기에 학생이 각각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이후 달라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제작해 상영했다. 전사하신 참전용사분들의 성함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우며 Maroon 5의 ‘Memories’를 합창한 팀도 있었다. 또한 뮤지컬 Rent의 삽입곡인 ‘Seasons of Love’를 부르고, BTS의 ‘Dynamite’ 춤을 추며 위로연을 다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다. 참전용사분들의 의전은 물론, 행사 사회도 학생들이 해냈다. 그렇게 위로연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캠프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나이도, 국적도 다른 학생들이 짧은 시간 동안 협력해 만들어낸 뿌듯한 성과였다.

결코 잊지 않을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

이 캠프가 단순히 관광 및 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활동이었다면 후기를 쓰는 지 금 적을 수 있는 감상은 그저 ‘유럽의 도시는 아름다웠고,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가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캠프에 참가한 총 40명의 한국, 벨기에 대학생들은 참가자인 동시에 모두가 기획자이자 진행자였다. 학생들은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돼, 출국 전부터 벨기에 학생들과 연락하며 발대식부터 해단식까지 모든 행사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준비 과정에서 느낀 참가자들의 성숙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인상 깊었다. 캠프에서 만난 한 벨기에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책임감이 주어져서 놀랐다’고 했다. 아마 모든 참가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때로는 책임감이 부담스럽고 함께 일하는 것에 고충도 있었을 테지만, 그만큼 큰마음을 들였기에 모두가 이번 경험을 아주 선명한 색과 또렷한 선으로 기억에 새길 수 있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참전용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 드리고 왔다. 결코 잊지 않을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다.



한국외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은 학생들이 글로벌 트레이더로 성장해 나가는 지름길로 꼽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행사·전시회 적극적으로 참가해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 우리 대학 GTEP 사업단을 이끄는 백재승 GTEP 사업단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로벌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지름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사업단장·
경상대학 부학장
백재승

온라인 무역전문가로의 무한한 가능성

우리 대학 GTEP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내외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 참가했다. 올 한 해 ‘15기 GTEP’ 학생들은 국내 전시회 24회와 해외 전시회 3회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 수가 49개사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백재승 단장은 그중 제주 로하스박람회, 이탈리아 국제 식품박람회, 미국 무선통신전시회, 두바이 K-Product Roadshow 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3~15일까지 개최된 제주 로하스박람회는 학생 37명이 6개 부스에 참가해 국내 유기농 제품을 홍보·판매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협력 업체와 바이어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10월 22~26일까지 열린 이탈리아 국제식품박람회(TUTTO FOOD)는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의 식품 전시회인데, 학생 12명이 한국관에 참가해 국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과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두바이 전시회도 수출 상담과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GTEP은 국내외 전시회 활동과 함께 수행한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면 수출 활동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진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외부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GTEP도 전자상거래 교육과 실습을 강화해 나갔다.

“지난 3월부터 아마존, 쇼피(shopee) 등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커머스 무역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결과, 식품·화장품 품목으로 약 6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대학에서 90개 팀이 참여한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이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특선과 입선 각 1팀씩 수상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도 무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이커머스경진대회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FTA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무역협회가 개최한 대학생무역캠프에서 참가팀 전원 최우수상 수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타 대학과 다른 우리 대학 GTEP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백재승 사업단장은 ‘외대의 강점이 GTEP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대학 GTEP은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어 역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장 합치되는 대학으로 평가받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지난 지역 연구 지식, 대학과 각 학과의 지원도 우리 대학 GTEP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점은 GTEP 활동에 그대로 반영돼 온·오프라인 전시회와 전자상거래를 수행할 때 협력 기업으로부터 학생들의 열정과 우수성이 큰 도움이 되고 수출에 자신감을 얻는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우리 대학 GTEP은 교내 전체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 40여 명이 2월 말부터 무역에 대한 기본 교육, 심화 학습, 특화 교육을 통해 전시 활동을 잘 진행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 교육에는 무역협회를 위시한 전문 강사진과 교내외 전문가의 특강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무역 계약, 전시 마케팅, 해외 수출 마케팅, 할랄 산업 수출 기법, 협상, 외환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지원팀장을 매개로 본부장 2명, 팀장 6명을 중심으로 전체와 팀별 활동이 어우러져 학생들이 소속감과 열정을 느끼며 활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다른 전공 학생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익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완해가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한 외국어 역량과 지역 연구 지식이 강점

온·오프라인에 능통한 무역전문가 양성할 것



GTEP을 수료한 학생들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청년무역전문가’ 인증을 받는데, 이는 취업할 때 유용하다. 해외 영업과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고, 해외를 망라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채용에도 도움이 된다. 백재승 사업단장은 GTEP이 학생들이 글로벌 통상전문가가 되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실제로 GTEP은 무역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중소기업과 실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역의 실제와 어려움, 보람을 느끼는데, 이를 통해 실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통상전문가가 되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국제통상 기구나 외교 기구의 통상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GTEP에서 수출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견실하고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GTEP 사업단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활동 계획을 답하기에 앞서 백재승 사업단장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GTEP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우리 대학과 각 학과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학생들이 마음껏 무역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무역 실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무역 활동 전략을 기획하고 구사할 수 있는 청년무역전문가가 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해외 전시회 파견과 함께 무역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 교육실습을 더욱 강화해 온·오프라인 무역전문가로서의 외대인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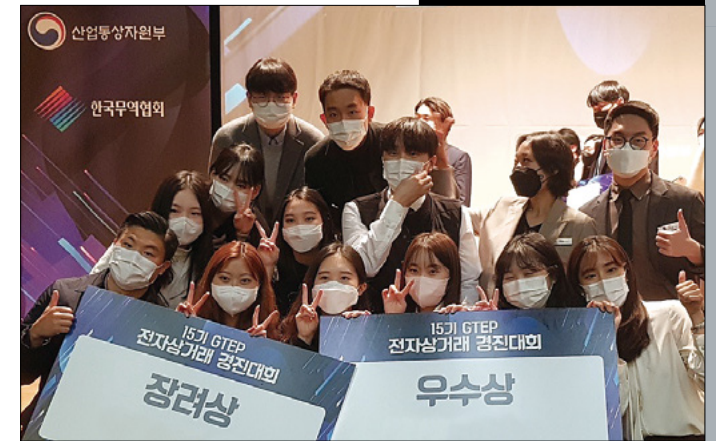
GTEP은 교내 전공이 다른 학생은 물론 다양한 대외 업체와 함께하는 활동이기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따른다. 백재승 사업단장은 학생들을 보면 다른 전공자, 여러 업체와 함께하는 활동이지만, 힘든 점보다 배우고 익히며 보람을 얻는 경험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GTEP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본부장과 팀장, 홍보팀 소속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팀별·개인별로 수행합니다. 무역전문가로 성장해 진로를 개척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지내죠.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해 교육과 실습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함에도 분위기가 매우 좋고, 전공은 다르지만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에게 배우는 시너지가 큼니다.”

GTEP 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는 대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학문+언어+실무지식으로 무장된 우리 대학 GTEP 특유의 모습이 대외 업체와 함께하는 활동에도 반영돼 업체 관계자들이 외대 GTEP 요원 학생들의 활동을 극찬합니다. 더불어 업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다른 전공자의 장점을 배우며 어려움을 극복하다



세계는 지금 ESG 열풍!

ESG는 무엇인가? CSR과는 어떻게 다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고대의 로마법 이래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1953년 Bowen이다. 이후 CSR은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개괄적인 책임을 지칭하면서, 기업 활동이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CSR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기업실무자들이 모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CSR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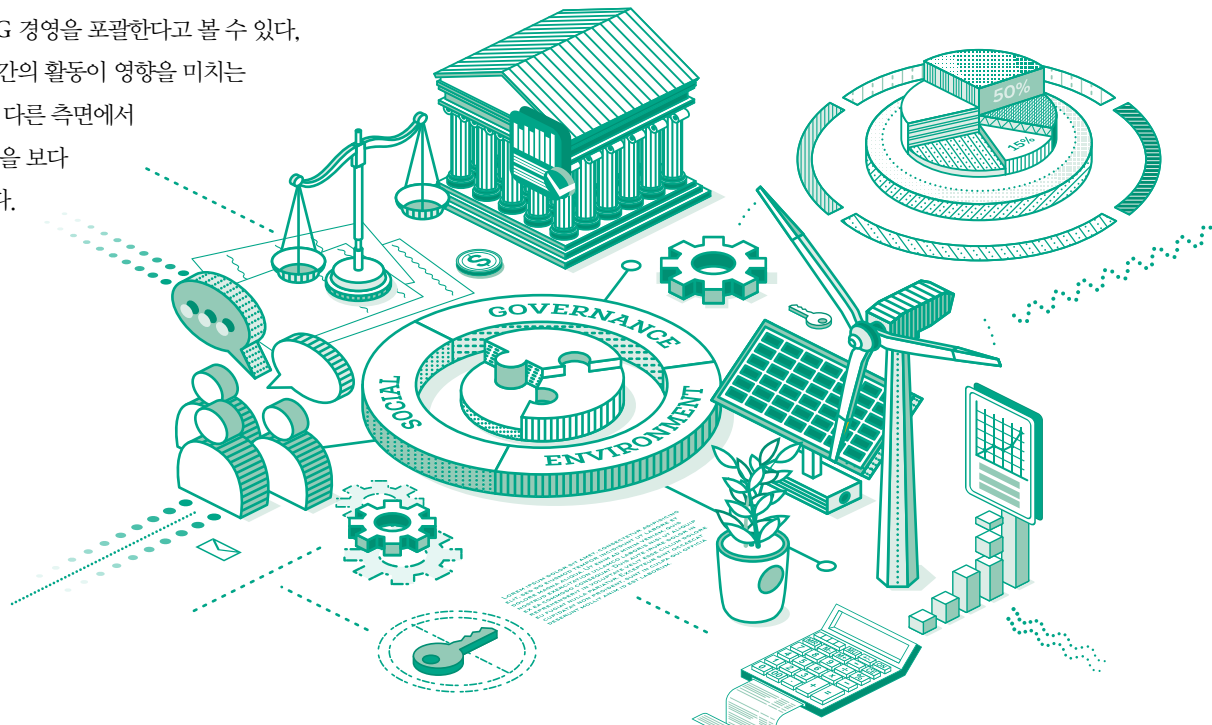
따라서 ESG(Environment·Society·Governance) 경영은 CSR의 모호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군다나 점증하는 환경문제,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증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대상이 됨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경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ESG 경영이 사회 화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SG 경영은 표현 그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ESG 경영이 새로이 또는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을 적시했기 때문이며,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상호작용해 기업의 성과와 사회적 책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간의 환경파괴를 지적하고 있다. 환경이 파괴돼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바이러스 포함)이 인간의 활동무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야 하며, 사회의 공익에도 기여하기 위한 지배구조는 앞으로의 기업경영에서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 투자는 ESG 경영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활동과 연관되며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하면, ESG 경영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확장해 구체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자연환경을 새로이 포함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태영
경명대학 교수



ESG 경영과 평가

2021년 현재 기업들 대부분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ESG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도 국가별 ESG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체현하고 있다. 즉,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앞으로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ESG 경영은 장기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기에 당장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기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지표 또는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 것도 틀림없다. 따라서 좋은 ESG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영리 활동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고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육아 문제에 대한 사내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고용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SG 경영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평가모델과 관련한 해외 사례로는 2001년 시작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지수가 있다. MSCI ESG 지수는 환경 분야(기후변화·자연자원·오염물질·환경기회), 사회 분야(인적자원·제품책임·이해관계자·사회적기회), 지배구조 분야(기업지배구조·기업행위)로 세분화돼 있으며, 산업별 주요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유력한 ESG 지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한국거래소가 2021년 1월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가 있다. MSCI ESG 지수와 유사하게 조직·환경·사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의 가이드스는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기업이 정보공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의 향후 방향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은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평가의 측면에서 보다 동태적인(dynamic)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결과 수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평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Yoo & Nam, 2015),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측정하는 현재의 ESG 평가 결과는 향후 기업의 생존과 성과를 예측하는데 괴리가 클 수 있다. 또한 향후의 ESG 경영이 고려해야 하는 점은 기업의 목적 가치와 행위 수단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또 다른 기업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들의 ESG 경영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같은 명시적 조직을 운영할 수도 있고, 사외이사 대신 지역사회의 가상 참여(virtual internalization)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의 ESG 경영은 '기업의 목적과 행위의 원리가 다양한 양식(varieties of firms)으로 실현될 수 있다'(유태영 & 권석균, 2013, p. 195)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 요소는 평가사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에 평가받는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가치와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평가사는 한편으로는 다양성(diversity)을 강조하지만(무디스는 환경 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을 강조함), 역설적으로 평가사의 평가요소는 글로벌 획일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과 국가는 ESG 평가에 있어 다양성과 획일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원고는 기업윤리 브리프스(2021년 4월호, Vol. 100)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Yoo, Taeyoung & Nam, Giseok. 2015. An expanded accounting framework for sustainable growth: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ocal firm and its stakeholders.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 & Management Sciences, 18(3): 366-379.
유태영 & 권석균. 2013. 위기의 자본주의: 경영과 조직 이론에 관한 새로운 이해. 인사조직연구, 27(3): 195-227.



H

U

F

S

HUFS NEWS

- HUFS Topics
- HUFS Today
- HUFS Academies
- HUFS Professors
- NEW Professors
- HUFS Institutes
- HUFS Books
- CUFS News

한국외대, 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 혁신 성과 -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및 3개년 종합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달성

우리 대학은 9월 15일(수)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및 3개년 종합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달성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진행했다. 우리 대학은 대학 인재상인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구현하기 위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양성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대학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혁신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번 성과 평가를 통해 '한국외대형 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사회 수요 기반의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이 추구하는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 성료

9월 13일(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된 '서양어대학 창립 40주년 기념 제19대 학장 취임식'이 100여 명의 내외빈,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취임식은 올해로 단과대학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서양어대학의 역사를 기리고, 제19대 학장 취임에 맞춰 서양어대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 데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김인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서양어대학의 학장 취임을 축하했다. 서양어대학 제19대 학장에 취임한 김시홍 학장은 다중적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만, 서대인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다시금 서양어대학이 우리 대학을 견인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외대, 권순한 소이상사 회장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우리 대학은 11월 4일(목)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헬라이쿠쉬네트홀에서 권순한 (주)소이상사 회장(스페인어 63)에게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김인철 총장은 환영사에서 “권순한 회장은 28·29·30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동문간 소통과 화합,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면서 “코스타리카 명예 영사로서 한국의 무역 발전과 공공외교에 큰 기여를 하신 바,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순한 회장은 “오늘 이 명예가 세계를 누볐던 모든 외대인의 노고를 위로하며,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권순한 회장은 세계적 의료기기 선도 기업 (주)소이상사 회장으로 있다.



김상국 비타민하우스(주) 대표,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11월 15일(월) 김상국(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84) 비타민하우스(주) 대표가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김상국 대표는 “언젠가 꼭 모교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닿아 기부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회를 밝혔다. 우리 대학은 김상국 대표의 뜻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장학금과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동문인 김상국 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 비타민하우스(주)를 이끌고 있으며, 회사 설립 20년 만에 비타민하우스(주)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상담영양사 제도’, ‘숍인숍 시스템’ 등 창의적 행보를 개척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혁신을 주도했다.





중국어통번역학과,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우승
우리 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이태규 학생이 8월 27일 (금) 아산나눔재단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해 5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이태규 학생은 2020년 채용 전문 SW인 '그리팅'을 제공하는 회사인 두들린(주)을 창업했다. 이태규 학생은 "스타트업 등 용문으로 통하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그리팅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외대, 2022년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 'ESG 착한 창업 생태계 조성' 최종 선정
우리 대학은 8월 31일(화) 2022년 서울 캠퍼스타운 단위형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시로부터 15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연간 5억)을 지원받아 2022~2024년까지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윤성우)은 2019년부터 단위형(지역상생형, 15억원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2022년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 사업은 창업 육성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착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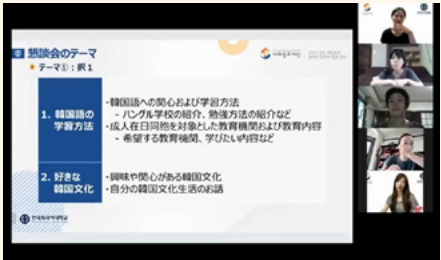
이탈리아어과,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학과장 최병진)는 9월 3일(금) 2021학년도 2학기 이탈리아어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전성철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승민(17학번), 최예인(18학번), 성시현(20학번), 김나연(21학번), 이탈리아어과 창립 50주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성준(20학번), 토스카 노수지(21학번) 학생에게 학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이탈리아어과 박관수 동문회장과 전성철 동문, 김시홍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포래상담 프로그램' 신설 운영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전재은)는 같은 학생의 시각에서 재학생이 겪는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돕고자 '포래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번 학기에 선발된 포래 상담자 12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인정한 솔리언 포래상담자 양성교육을 받았으며, 전문가 지도를 통해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교육받고 있다. 이들은 심리적 위기 학생을 만나면 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포르투갈어과,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학과장 임소라)는 10월 1일(금) '2021-2학기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2명의 장학생(18학번 윤태원, 19학번 김영화)에게 한 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온 학생들을 격려·응원하고자 장학금 수혜액을 늘려 특별 장학금 형태로 지급했다.



한국외대, '2021 재일동포 온라인 한국어 집중 연수'
우리 대학이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재일동포 한국어 집중 연수(책임·KFL대학원 김재욱 주임교수)' 과정이 8월 13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금)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국어 집중 연수 과정은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입문~고급), 역사 문화 수업, 온라인 실시간 문화 체험 수업, 테마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 수준별 수업을 했다.



한국외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동 외국인인 위한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학과장 송승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우마르 하디)과 협력해 대사관 주관의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BIPA)'을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9월 6일(월)부터 12월 20일(월)까지 16주에 걸쳐 진행되며, 언어 및 문화(춤, 공예, 악기 연주) 관련 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학기에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20여 명의 학생은 2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학부, 2021학년도 2학기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는 9월 17일(금) 2021학년도 2학기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양하은(19학번), 함효림(21학번)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의 1억원 약정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매 학기 국제학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스켈터랩스 AI 언어 연구 개발 사업 협력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데이터센터(센터장 윤성우)는 10월 7일(목)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스켈터랩스(대표 조원규)와 AI 기반 언어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협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리 대학의 언어 데이터 및 외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스켈터랩스의 대화형 AI 핵심 기술력을 결합해, 동남아시아 등 전략 지역 언어 및 특수 산업 도메인에 대한 자연어 처리에 대해 협업할 계획이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경찰청 외사국과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 이하 '특교원')은 10월 15일(금) 경찰청 외사국과 특수외국어 교육 및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교원은 경찰청 외사국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11개 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이란(페르시아)어, 힌디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터키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 특수외국어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사회적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과, 육군사관학교 주최 제20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한국학과 박승태(119 학군단 후보생) 학생이 10월 8일(금) 육군본부 주관하고 육군사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가 주최한 제20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국내 최고·최대의 대학생 토론대회로,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안보와 통일문제 공론의 장이다. 박승태 학생은 제2분과인 통일분과에서 1등을 차지해 육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학군사관 후보생으로서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해 우리 대학 학군단의 자력을 보여줬다.



중국언어문화학부, '데이터 아카이브' 정식 오픈
우리 대학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학부장 박정원)는 10월 18일(월)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비한 '데이터 아카이브(www.chufs.net)'를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으로 오픈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중국언어문화학부장 박정원 교수가 직접 Wordpress Core, LCMS, WIKI 플러그인을 결합해 개방형·반응형으로 개발한 것이다.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강사, 전공 또는 부전공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의 '청년과의 대화' 참가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이 10월 18일(월)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의 '청년과의 대화'에 참가했다. 한·미·아세안의 외교 현안에 대한 토론과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과 아세안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질의응답 등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사회문화전공 윤정민 학생과 LD학부 강민수 학생이 참가했다.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2021학년도 정독상 시상식

글로벌캠퍼스 도서관(관장 최성운)은 10월 15일(금) '2021학년도 정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출된 감상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검토로 여섯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정병혁(철학 16), 우수상은 박지원(برا질학 19), 신윤석(글로벌스포츠산업 21), 장려상은 이준서(중국어통번역 19), 김한이(프랑스학 18), 진양현(남아프리카어 17) 학생이 선정됐다. 수상자의 독서감상문은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021학년도 한국외대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2021학년도 한국외대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이 10월 26일(화)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021학년도 학생홍보대사는 새로미 15명과 흡스온(HUFSon) 15명 모두 30명이 선발됐으며, 2021학년도 2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새로미는 교내외 학교 행사 의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투어를 담당하며, 흡스온은 학교 공식 SNS를 운영·관리하며 학교 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2021 HUFS JOB 토크 콘서트'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센터장 오세홍)는 10월 28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취업 전략'을 주제로 '2021 HUFS JOB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오세홍 진로취업지원센터장과 SK이노베이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사 채용 팀장, 한지영 취업지원관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5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해 워드 코로나 시대의 취업 전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모네 EU센터, 2021 모의 유럽연합 이사회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센터장 김시홍)는 주한 EU 대표부,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EU센터와 10월 14일(목)~15일(금) 오바마홀에서 '2021 모의 유럽연합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보건 안보'를 주제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장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종합된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 기지단과의 회견 등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일 차 본 대회에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회원국 대표간의 의견 절충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어문화교육원, 일본학대학 주관 한일 언어교류 행사 참가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의수)은 일본학대학(학장 문명재)이 주관한 한일 언어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한일 언어·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40여 명의 한일 양국 학생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가을학기 시작과 함께 4주간 진행됐고, 자기 소개, 관심사 자유 대화, 소그룹 토론, 팀별 대항전 등 온라인(Zoom)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활동 외에도 대면 활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영어토론 동아리 HDS, 전(全) 아시아 대학생 토론포럼 EFL 리그 우승

우리 대학 중앙 영어토론 동아리 HDS(HUFS Debate Society)는 10월 9일(토)~10일(일) 개최된 전(全)아시아 대학생 토론포럼(United Asia Debating Championship-UADC) 본선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외국어로서의 영어)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거뒀다. HDS는 박영우(이탈리아어), 윤석진(영어교육), 예르비사리 미미카(국제통상) 학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했으며, 결승전에서 10:1의 압도적 결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츠, 전국 대학 추계 미식축구 대회 참가

우리 대학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츠(지도교수 김봉철)는 11월 14일(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 추계 미식축구 대회에 참가해 성균관대학교 미식축구팀 로얄스와 추계 리그 첫 경기에 나섰으며, 1차전 결과 16:13으로 아쉽게 패했다. 선수들과 매니저들은 "오랜만에 필드에 나와 실전 호흡을 맞추며 때로는 긴박하게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선수들의 눈빛에서 모두 승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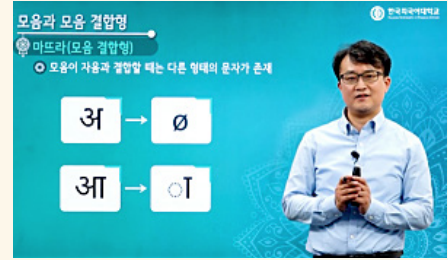
크로아티아 외교부 사절단,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방문

11월 10일(수) 크로아티아 외교부 사절단 일행인 크로아티아의 외교부 장관 정치보좌관 Petar Mihatrov 박사와 유라시아·오세아니아 국장 Dunja Sičaja가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를 방문해 신정환 부총장을 면담하고 크로아티아 대학과 우리 대학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학과장 김상현) 교수진 및 학생들과 만나 대한민국 유일의 크로아티아 전공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GTEP 사업단, 한국무역협회 주최 '2021 대학(원)생 FTA활동 홍보 콘텐츠 공모전' 한국무역협회장상 수상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 사업단')이 10월 18일(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학(원)생 FTA 활동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 대학 GTEP 사업단의 박수빈·우지연·이윤지·한혜주 학생은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1380 FTA 상담 콜센터 및 FTA 통합 플랫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영상 부문 우수상(한국무역협회장상)을 차지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K-MOOC 힌디어 강좌 '블루리본' 선정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이 개발한 '힌디어 문자와 기초여행 회화' 강좌(고태진 교수, 인도어과)가 K-MOOC 자율참여 강좌 '블루리본'으로 선정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과정은 우수 강좌를 선발해 블루리본이라는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강좌로 인증한다. 고태진 교수의 강좌는 인도의 주 공용어인 힌디어 기초 과정으로, 문자와 발음을 차근차근 쉽게 배우고, 인도 여행 시 필요한 유용한 표현을 문법과 함께 익힐 수 있다.



폴란드어과, 주한 폴란드 대사관 공동 '제11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우리 대학 폴란드어과(학과장 최성운)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11회 폴란드어 말하기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폴란드의 발자취/폴란드에서 한국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경연대회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11월 23일(화) 글로벌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의 영예는 폴란드어과 3학년 안시현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시상식에 참석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가 상장을 수여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세종연구소 공동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 공간' 전략 포럼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9월 28일(화)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 공간'을 주제로 전략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한국의 북방 지역에 대한 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자는 목표로 2세션에 걸쳐 각 지역 주요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국내 외 연구 기관과 학술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제2차 인문한국플러스(HK+) 연합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이 주관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국제지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인문한국플러스(HK+) 연합 학술대회가 10월 20일(수)~22일(금) 열렸다. '동·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오백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의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교류·소통했는지 토의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11월 12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1부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과 국제 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2부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 중립과 남북한 협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러시아연구소

외교부 학술연구용역과제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한국)' 선정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의 최우익 교수가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한국)' 연구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 과제는 한-러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정서적 인식 조사를 통해 한-러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는 두 국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대러 외교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러 관계 30년에 대한 평가와 양국 관계의 전망을 예측할 때 필요한 자료라 더욱 의미 있다.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라시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외교부 주최 한러싱크탱크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지난 9월 30일(목) 국립외교원에서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와 공동으로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의 신북방 정책에 대한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4회 신북방정책포럼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11월 3일(수) 제4회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연구소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양자산업협력사업 중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열린 네 번째 포럼이다. 제4회 포럼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크라이나 협력 전망에 대해 지역 전문가 4명이 발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의 장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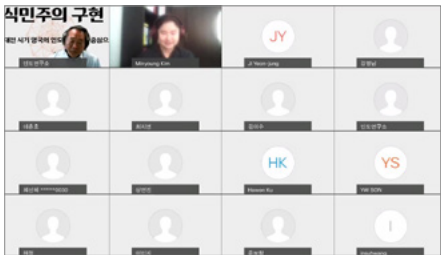
영사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9월 13일(월)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 소장 최호상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인도 금융 시장과 경제 관련 전문가인 최호상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인도 금융 시장의 현황을 보여준 후, 인도 금융 산업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루면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는 인도 금융 산업에서 인도의 특징적인 디지털화, 국가 신용증가를 성장 등 인도 금융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에 대해 언급했다.



제36회 콜로퀴엄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10월 25일(월) '군사병원을 통한 식민주의 구현: 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의 인도인 병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6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퀴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인도 병사가 참전했음에도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식민 지배자에 의해 프로파간다적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영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일본의 행태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제16회 인문주간 행사 성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수람은 10월 25일(월)~27일(수) 인도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16회 인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 음식 특강', '인도 영화 특강', '인도 여행기 발표회', '인도 도시 특강', '인도 무용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참석자들로부터 '코로나시대, 인도로 일상을 이야기하다'라는 올해 인문주간 대주제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는 평을 받았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10월 15일(금)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 제1세미나실에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생태 환경 보호라는 공동 비전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 국내외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과 신규 네트워크 공동 구축, 전문 인력 교류 등에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10월 29일(금) 서울 종로구 유재에서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서는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과 지구와 사람의 공동 목표인 생태 문명 추구하고 지구 법학의 확산을 추구하기 위한 세 가지를 협약했다. 두 기관은 학술 행사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고, 연구 조사와 출판 등 학술 사업에서 협력하고, 공동으로 연구·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제3차 수막 까우사이 포럼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11월 26일(금)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3차 수막 까우사이 포럼(Foro Sumak Kawsay)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이 안데스 지역 국가의 주한 외교관을 초청해, 한국과 안데스 핵심 국가간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고 안데스 지역 핵심 국가의 전통과 역사를 한국에 소개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이번 포럼은 안데스 지역의 고대 원주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EU연구소

EURAXESS Korea, 주한 독일 고등교육 진흥원 공동 'Falling Walls Lab Seoul 2021'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가 주최하고 EURAXESS Korea, 주한 독일 고등교육 진흥원(DAAD)이 공동 기획하는 'Falling Walls Lab Seoul 2021'이 9월 25일(토) 오프라인 예선으로 개최됐다. 11월 8일(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alling Walls Lab Finale & Conference'의 한국 예선이다. 비영리 단체 'Falling Walls'가 진행하는 'Falling Walls Lab'은 각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 포럼이다.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10월 22일(금)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 협정을 통해 EU연구소와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유럽, 글로벌 기후 변화 관련 자료와 연구 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 정보 교환, 인문한국 플러스와 중점연구소 등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운영 및 제반 업무 협력, 기후 기술, 탄소 중립 분야 산·학·관·연 실무자간 교류 증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EU연구소-장모네EU센터, 추계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장모네EU센터(소장 김시흥)는 10월 22일(금)~23일(토)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국유럽학회,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등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EU 협력'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EU의 경제와 정치적 협력에 대한 연구 논문 약 25편이 발표됐다. EU연구소 패널과 장모네EU센터 패널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생, 신진 학자의 발표가 마련됐다.



학부 과정 재학생팀

연구 논문 경영학 분야 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서용원(경영 18), 이수현(경영 19), 정드림(통계 17), 정수연(경제 18)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경영학 분야 국내 저명 학술지인 〈상품학연구〉에 실렸다.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재학생들은 경영대학 경영전략학회 MAST, 쿼트마케팅세미나 QMS, 실증분석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을 계기로, 경영대학 윤원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국내 식품 시장에서 건강함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미디어외교센터

'공공외교와 커뮤니케이션' 대학 교재용 도서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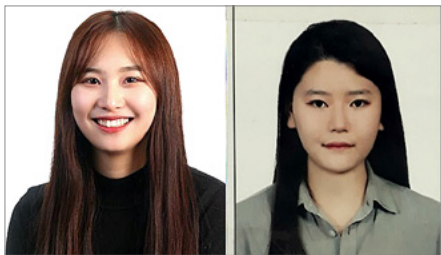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산하 미디어외교센터(H.CMD)에서 「공공외교와 커뮤니케이션」(채영길 편저)이라는 개론서를 출간했다. 이는 15명의 저명한 공공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진 등 연구진의 협업으로 나온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첫 공공외교 개론서다. 국내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공공외교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디어 외교의 교육과 연구적 관심 확장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W중심대학 SW산학프로젝트

국제 저명 학회지(SCIE) 게재 및 수상

우리 대학 SW중심대학 SW산학프로젝트에서 이채영·김효민(정보통신공학) 학생이 참여한 논문 〈A Study on Building a 'Real-Time Vehicle Accident and Road Obstacle Notification Model' Using AI CCTV〉가 공학 분야 SCIE 저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기존 CCTV 데이터를 이용해 도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AI CCTV를 개발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인근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알려 사고와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서비스 연구다.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과 '신북방경제협력 주요국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단장 오종진)은 9월 30일(목)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과 공동으로 '신북방경제협력 주요국 현황과 전망 세미나-최근 카자흐스탄 대외경제협력 및 사회발전 동향과 전망'을 개최했다. 80여명 이상의 연계 학과 학생이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대외 경제 협력 및 사회 발전 동향과 전망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극지연구센터

'2021 북극연구공동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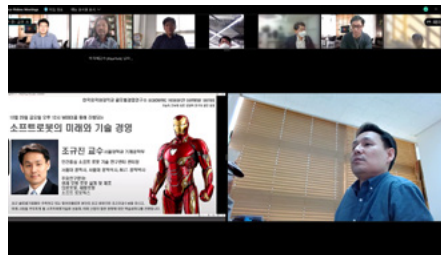
우리 대학 극지연구센터(소장 최우익)는 10월 29일(금) 송도캠퍼스 외대국제교육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주최 '2021 북극연구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북극의 미래' 주제 아래, 우리 대학 극지연구센터의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지역 사회 변화', 환경과학연구소의 '최신 북극 대기 연구 동향',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의 '북극의 지정학적 환경과 한국의 북극 정책', 우리 대학 EU연구소의 '유럽의 북극 전략과 정책' 발표가 있었다.



글로벌경영연구소

영사 초청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연구소(소장 박지혜)는 10월 29일(금)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를 초청해 '소프트로봇의 미래와 기술 경영'을 주제로 한 온라인(Webex)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 교수진과 연구원 등 참석자가 로봇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더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으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경계너머 연구센터

비영리 단체 '호모인테르'와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경계너머 연구센터(센터장 장용규)는 11월 4일(목) 글로벌캠퍼스에서 '호모인테르(대표 박재윤·오대남)'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계너머는 난민·이주민·탈북민·디아스포라 등 우리 사회 내의 타자들과 '경계의 문화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센터'다. 호모인테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목표로 난민과 이주민 통역·정착 지원 활동을 한다. 두 기관은 7월부터 월례 세미나를 공동 운영하며, 앞으로 학술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경영대학 학부 과정 연구팀

'인공지능(AI) 채용' 프로젝트 공동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 특별호 게재

우리 대학 경영대학(학장 조준서) 양재완 교수가 학부생 4명과 협업한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논문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iring: An exploratory study of hiring market reactions〉이 일본의 국제 연구 기관인 일본노동정책 및 연수기구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특별호에 게재됐다. 이번 공동 연구는 2019년 경영대학 40주년 행사 기념으로 추진된 '경영사례 공모전' 주제를 모색하며 양재완 교수와 학생들이 'AI 채용'을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융합인재대학

'2021 Ingenium-K Project' 세 번째 릴레이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은 11월 15일(월) 'UNESCO 유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융합인재대학 '2021 Ingenium-K Project, 미래를 만드는 특강'의 세 번째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의 강연자로 나선 우리 대학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는 '인류학, 문화 인류학, 그리고 문화유산', '인류학의 주요 개념과 방법론', '문화유산과 ODA(공적개발원조)', '문화유산과 globalization' 등을 주제로 문화 유산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제공했다.



HUFS Professors



박진균 화학과 교수, 세계 최초 공유성 나노유기층 기반의 차세대 소품 이차전지 전국 소재 개발 성공
우리 대학 화학과 박진균 교수 연구팀은 경북대학교 백승민 교수·동국대학교 오제민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소품 이차전지 전국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에서 박진균 교수는 유연 전극 소재로 응용할 수 있는 공유성 유기 프레임워크 나노층을 그래핀 나노층과 혼성화하는 합성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소품 이온

저장자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SCI) 중 녹색 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ChemSusChem>에 2021년 8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윤은경 아랍어과 교수, 유네스코 '2021 세계 아랍어과 연맹 국제학술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
우리 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가 9월 2일(목)~4일(토)까지 사흘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 세계 아랍어과 연맹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아랍어 교육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은경 교수는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발표자 120명과 아랍어과 교수 및 전공 학자 1000여 명이 화상으로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 세계 아랍어과 연맹 사

무부총장과 학술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



최승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6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수상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10월 26일(화) 제6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 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통한 핀테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핀테크는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금융 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다.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 제27회 통계의 날 옥조근정훈장 수상

우리 대학 통계학과 강기훈 교수가 9월 1일(수)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 국가 통계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강기훈 교수는 통계 이론과 관련해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 연구 수행, 통계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대중성 강화, 산관학 협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국가 통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상했다.



김규진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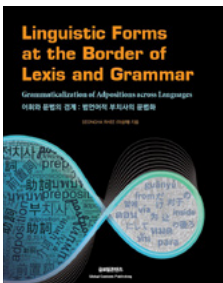
우리 대학 동유럽학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김규진 명예교수가 9월 24일(금) 33여 년간 체코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20여 권의 체코 문학을 번역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The Jiří Theiner Prize)을 수상했다. 김규진 교수는 2014년 은퇴 이후에도 체코 문학 번역에 전력을 쏟아 미할 아이바스의 『제2의 프라하』, 카렐 차페크의 단편집 『주머니 속 이야기 시리즈』 등 체코 문학작품 7권을 번역했고, 체코 문학을 한국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교수 출간

이성하 ELLT학과 교수, 「어휘와 문법의 경계: 범언어적 부치사의 문법화」 출간

우리 대학 ELLT학과 이성하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Linguistic Forms at the Border of Lexis and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Adpositions across Languages」 어휘와 문법의 경계: 범언어적 부치사의 문법화」를 출간했다. 전치사와 후치사를 아우르는 부치사라는 범주는 언어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법 범주다. 이 연구는 계통적·유형론적으로 다양한 6개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태국어에서 부치사가 발달하는 과정을 말뭉치 자료와 문법화 이론을 갖고 분석한 드문 연구 중 하나다. 어휘와 문법의 경계점에 놓여 있는 언어 형태가 어떠한 개념적 전이와 형태통사적 변화를 겪어 문법 요소로 발전하는지 잘 보여준다.



New Professors

〈신임 교원〉



〈신임 직원〉



- 01 **김강석**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 02 **한성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03 **김진아**
Language & Diplomacy학부
- 04 **공진성**
법학전문대학원
- 05 **최소영**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 06 **김용정**
인도연구소
- 07 **Irina Svintsova**
서양어대학 노어과
- 08 **Noelia Nunez Preza**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 09 **Robert Zola Christensen**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 10 **Supparat Sangchatkaew**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 11 **Nguyen Thi Phuong Anh**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12 **Yinsen Parit**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 13 **Iamdanush Jakrabhop**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 14 **Sonezza Ladyanna**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 15 **Groszewska Kinga**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
- 16 **Darina Ivanovova**
동유럽학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 17 **Terezia Kulikova**
동유럽학대학 체코·슬로바키아어과
- 18 **Orosz Andrea**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 19 **Boris Skvorc**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 20 **Tanchyn Kateryna**
동유럽학대학 우크라이나어과
- 21 **김수연**
총괄지원팀(서울)
- 22 **박종은**
총괄지원팀(글로벌)
- 23 **이동엽**
입학총괄팀
- 24 **최강**
사업본부운영팀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연수평가원

2022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2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 07 ~ 06. 24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 03 ~ 01. 28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3. 08 ~ 05. 31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2. 26 ~ 06. 11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이다.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 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모든 과정은 평일과 주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FLEX센터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목)-02.23(수)	03.20(일)	04.08(금)	04.22(금)
2회	04.28(목)-05.04(수)	05.29(일)	06.17(금)	07.01(금)
3회	08.04(목)-08.10(수)	09.04(일)	09.23(금)	10.07(금)
4회	10.06(목)-10.12(수)	11.06(일)	11.25(금)	12.09(금)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

어 능력 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1학년도 후기(38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다가오는 12월 28일(화)부터 1월 15일(토)까지 한 달여 간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 세미나를 진행한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1학기 동안 TESOL 연구 과정을 수강한 24명의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7명의 원어민 교수님이 평가에 참여하며, 영어세미나 평가를 마지막으로 2학기를 마무리짓는다.

2022학년도 전기(39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2년 3월 2일(수)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2학년도 전기 과정생 일반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11월 1일(월)부터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했고, 11월 14일(일)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치렀다. 지원자는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를 했고, 이 과정을 통과한 20여 명이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특별전형은 다가오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10일(월)까지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후기(38기) 채용 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지난 11월 23일(화)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래는 같은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학원인 DYB 최선어학원과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한국외대 부설 HIFS 어학원이 참여했으며, 모두 15명의 기졸업자와 수강생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업체 내력, 업무 내용, 처우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교육 기관은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넓은 취업의 길, 업체에는 인재 획득의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는 채용 설명회는 분기마다 개최된다.

한국문화교육원

가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겨울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5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가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외대 학부생(멘토)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멘티) 대상 멘토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전도) 기회를 제공해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양성하며,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에게는 캠퍼스 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외대 학부 입학을 유도하고자 한다. 올해 봄학기부터 시작된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부생 및 외국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세아특수강 파워중국과정 입소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2021년 10월 12일(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세아특수강 파워중국과정'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아특수강 주재원 파견 대상자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지역 이해,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 이해 전문 프로그램인 '야오아오지우 과정'을 통해 주재원 파견 준비를 마무리한다.

세아특수강 태국어 집중과정 입소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2021년 11월 29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진행될 '세아특수강 태국어 집중과정'의 입소식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세아특수강의 태국 주재원을 대상으로 파견 전 글로벌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태국어 중심의 현지어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보조할 영어 콘텐츠와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생은 4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 역량을 신장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태국으로 파견된다.

한화토탈 어학 인턴십B 과정(중급) 입소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2021년 10월 12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한화토탈 영어집중과정(중급)'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화토탈 임직원 중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내 글로벌 리더를 위해 기획된 과정으로, 교육생들의 기초 영어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반복적인 오류를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교육생들의 업무 역량을 개선했다. 8주간의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소정의 어학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와 성과를 확인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한화토탈 어학 인턴십B 과정(고급) 입소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2021년 12월 13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진행될 '한화토탈 영어집중과정(고급)' 입소식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중급 과정에 이어 고급 수준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4주간의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신장하는 콘텐츠를 소

화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현업으로 복귀해 업무를 지속한다.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202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전형을 실시했다.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은 초등 4학년 영어/초등 5·6학년 영어/초등 5·6학년 수학/중등 1·2학년 영어 4개 학급으로, 정원 60명으로 진행된다. 이에 이번 선발 전형은 각 학급별 15명, 총 60명 정원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번년도 지원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60명 선발에 모두 625명이 지원해 약 10.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1월 22일(월) 60여 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전형 진행을 마무리했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공감과 공간 II

2019년 발간한 「공감과 공간」의 두 번째 시리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태제를 우선하면서 ‘손안에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보존, 재생, 환경 보호 등 시대의 요구에 알맞은 문화 자원을 선별해 국가별 유형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 동향을 문화 정책·지역개발 정책을 통해 개괄한다. 1장은 아시아 중국과 일본, 2장은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장은 북중미 미국과 멕시코, 4장은 아프리카 모로코와 오세아니아 호주를 소개한다.

김진영, 이종오 / 220면 / 신국판 / 25,000원

FLEX 독일어 UP

20여 년간 쌓은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FLEX 독일어의 출제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책이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숙달 영역별 문제 유형을 세분화해 핵심 원리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 전략을 기술하고, 2회에 걸친 실전 테스트로 응시자가 교재만으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했다. 제1부 실전 문제는 기출 문항을 바탕으로 예제와 실전 문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제2부 모의고사는 FLEX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실전처럼 테스트해볼 수 있게 했다.

유덕근, 최경인 / 456면 / 46배판 / 27,000원

스웨덴어 문법

「스웨덴어 문법」은 제1부 조어론과 제2부 통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어론은 단어가 생성되는 원리를 다루는 반면, 통사론은 단어가 모여서 어떻게 구와 절이 이뤄지는지를 다룬다. 이 교재의 주요 목적은 스웨덴어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구성 요소의 문장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스웨덴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스웨덴어 기본 문법 실력을 갖춘 학습자가 다양한 장르와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스웨덴어 문법 지침서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현숙 / 212면 / 46배판 / 25,000원

우즈베크어 표준 교재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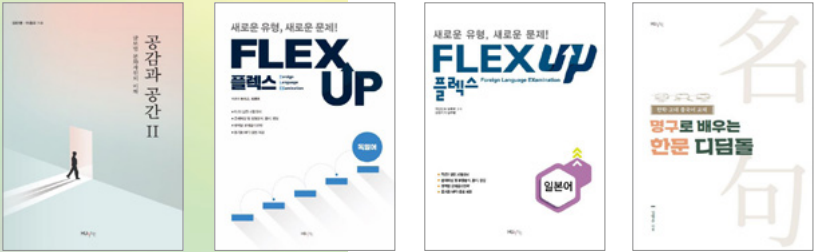
「우즈베크어 표준 교재 A2」는 A2 단계에 난이도를 맞춰, 우즈베크어 입문과 기초 수준(A1)을 충실히 학습한 경우 독립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게 단원을 구성했다. 모두 11과에 이르는 각 단원에는 새로운 단어와 주요 문법, 대화 연습,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우즈베크어 지문이 담겨 있다. 단어와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병기했으며, 단원 마지막에 들어간 문화 관련 지문은 한국어 번역본을 실어 학습자가 해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Mashrabbekova Aziza, 이자은 외 / 398면 / 46배판 / 33,000원

전문가를 위한 스페인어 문법 2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문법 지식을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책이다. 기존 스페인어 교육과 학습에서 설명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법 항목을 선정해 이론적 분석과 설명을 바탕으로 스페인어 문법 항목으로 새롭게 개발했다. 스페인어를 교육하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향후 스페인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스페인어 학습자가 이 책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한, 유은정 / 316면 / 크라운판 / 26,000원



FLEX 일본어 UP

FLEX 일본어 시험을 위한 기출문제 해설서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평가 영역의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시한다. 각 영역에 따른 문제 유형과 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문제해설 부분과, 실제 시험과 같은 방식의 모의고사 부분으로 나뉜다.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 기출 문제를 사용하며, 유형별 문제풀이 요령을 제시한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과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규, 김수경 / 360면 / 46배판 / 25,000원

명구로 배우는 한문 디딤돌

「명구로 배우는 한문 디딤돌」은 한학 및 고대 중국어 교재로, 많은 예문을 제시해 설명의 타당성을 높였다. 학습자는 책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한문(한학, 고대 중국어, 문언문) 실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책이 모은 문언문 학습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독학으로도 탄탄한 문언문 실력을 갖추도록 바탕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저자는 이 교재로 문언문 실력자가 늘어나면 몇몇 기관에 쌓여 있는 고문서 번역이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김형주 / 420면 / 크라운판 / 28,000원



통번역 교육을 위한 기본 개념과 모델

존 벤자민스 통번역 총서 첫 번째 책으로, 통번역 교육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회의통역사나 번역사로 활동하는 이를 위해 집필했다. 대상 독자가 책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단, 독자들이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은 예문이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이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참고문헌 수가 차이 난다. 한편, 인지과학과 관련된 주제는 되도록 많은 문헌을 담았다.

Daniel Gile / 452면 / 신국판 / 30,000원

포르투갈어 표준 교재 A2

이 책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에 초점을 맞춰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10개 단원으로 나눠 담았다. 각 단원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이 단원별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한 영역별 포르투갈어 표준공통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초급 단계의 단어 800여 개를 바탕으로 상황별 기초 언어 역량 배양에 필수적인 기본 어휘, 언어 형식(패턴), 문법, 연습문제를 제공한다.

임소라, 이승용 / 164면 / 46배판 / 25,000원

힌디어 표준 교재 A2

이 책은 「힌디어 표준 교재 A0」과 「힌디어 표준 교재 A1」을 학습한 사람을 대상으로 초급 수준의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하게 집필했다. 이전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일부 주제도 포함했으며, 조건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수 문법을 함께 다뤘다. 따라서 과마다 관련 주제 기본 표현을 위한 ‘대화1’, ‘대화2’, 힌디어 문법 기초 지식을 위한 ‘문법’, 어휘 및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문형 이해하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된다.

한국외대 인도어과, 인도학과 / 280면 / 46배판 / 30,000원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는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 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9개다. 1차 모집은 1월 12일(수)까지, 2차 모집은 1월 27일(목)부터 2월 15일(화)까지며,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외대 학부 졸업자나 졸업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면 입학금 면제 및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창 석좌교수, 학교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1월 23일(화) 대학 사이버관 총장실 부속회의실에서 '문화창 석좌교수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을 거행했다. 문화창 석좌교수는 기탁식에서 "평소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장학금 기탁을 해왔다. 이번 기탁을 통해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측은 학교를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를 전했다.



'2022~2024년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 선정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현재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4개국 7개 교류대학에 한국어 및 초·중급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제공하고, 이를 해외 대학과 협력 운영하고 있다. 2022~2024년 3년간 더 해외 대학에 강좌를 송출·운영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학습 보조 자료나 교구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신규 교류대학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동북아시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운영' 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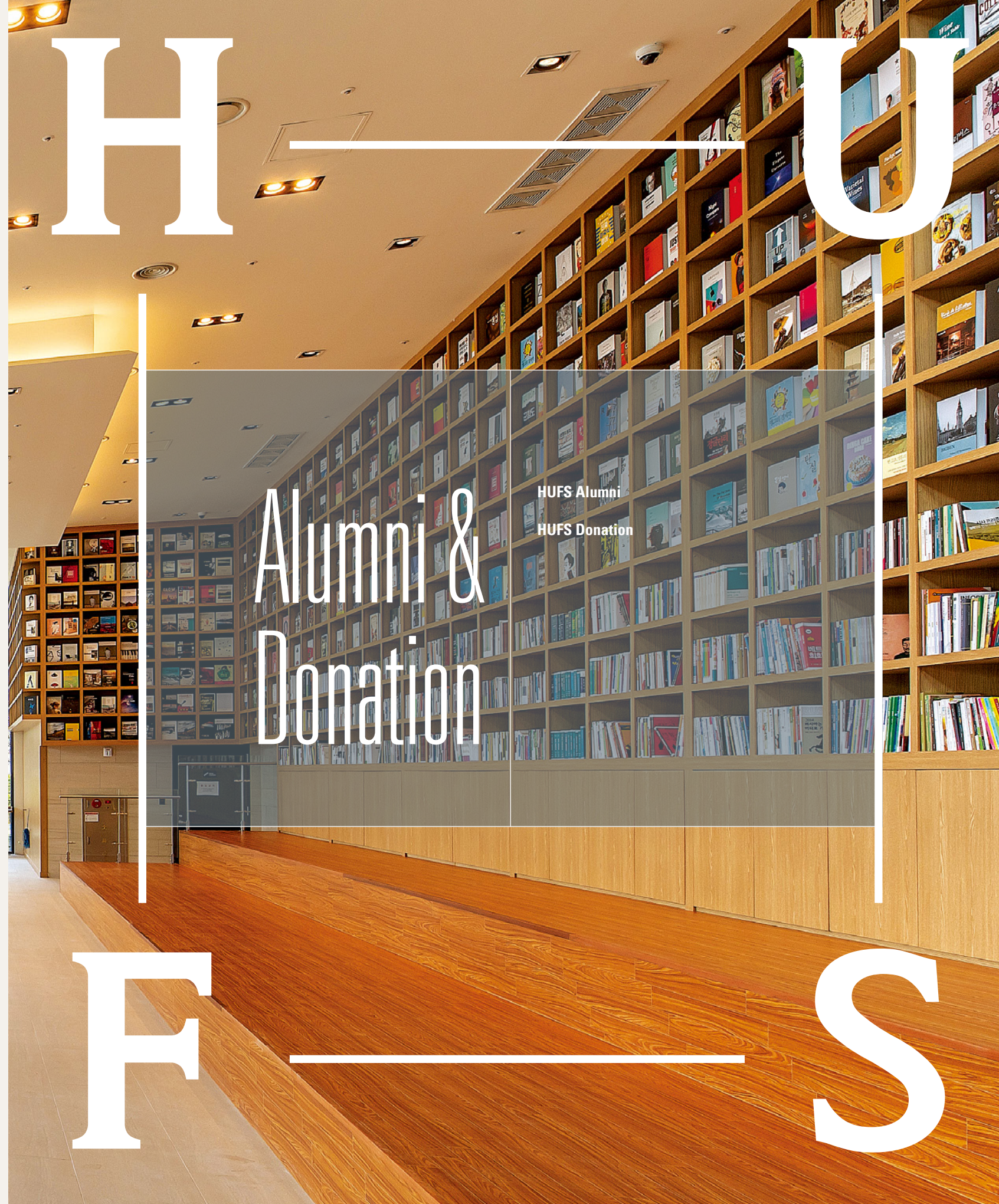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대는 세종학당재단의 '2021년 동남·동북아시아 권역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9월 1일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를 핵심 지역으로 하고, 라오스, 싱가포르, 네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동남·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해당 지역의 온라인 교육환경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K-MOOC '컨벤션기획사자격증 대비과정(2급)' 묶음 강좌 운영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컨벤션기획사자격증 대비과정(2급): 게임화융합설계' 묶음 강좌를 12월 5일(일)부터 15주간 운영한다. 이 묶음 강좌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컨벤션 산업론, 호텔관광 실무론, 컨벤션 영어 실기, 컨벤션 영어 필기 등을 학습하고, 전문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강좌다. 영어학부 내외국인 교수, 마케팅·경영학과 교수 등 최정예 교수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K-MOOC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TESOL대학원, 전문가 초청 온라인 콜로퀴엄 개최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급변하는 영어교육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공개 콜로퀴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TESOL대학원 공식 유튜브(YouTube)나 줌(Zoom) 등을 활용해 강연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언어학습 도구와 게이미피케이션의 활용,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영어수업 설계 등 최신 영어교육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특강을 선보였다.



HUFS Alumni



이기남 동문, <송해 1927>로 영화 프로듀서 데뷔
우리 대학 이기남(스페인어 09) 동문이 11월 18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을 통해 영화 PD로 데뷔했다. 이기남 동문의 첫 번째 필모그래피이자, 최고령 연예인 송해의 데뷔 66년 인생, 그리고 격동의 현대사 이야기를 함께 담은 다큐 영화 <송해 1927>은 많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기남 동문은 송해의 희로애락이 담긴 인생 이야기와 영화 제작기를 담은 책 『송해 1927』도 출간했다.



김상중 동문, 비즈니스 문서 만들기 동영상 강의 출시
비즈니스 문서 작성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김상중(스페인어통번역 03) 동문이 동영상 강의를 론칭했다. 김상중 동문은 글로벌 교육플랫폼 유데미(udemy)에서 온라인 강의 <쉽게 이해되며 깔끔한 표현의 비즈니스 문서 만들기>를 통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즈니스 문서 제작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한다. 또한 유튜브(youtube)에서도 <김상중의 PPT 맞춤강의>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PPT 스킬뿐 아니라 간결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문서, 기획안 작성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박상욱 동문, '올해의 의과학취재상'·'기후변화 그랜드어워드' 수상
JTBC 환경 분야 심층 취재 기자인 우리 대학 박상욱(프랑스어교육 05) 동문이 11월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상욱 동문은 2019년 11월부터 기후 위기 시대를 집중 조명한 심층 기사 '박상욱의 기후 1.5' 연재를 통해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슈를 꾸준히 심층 취재해 쉽고 자세하게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의과학취재상'(한국과학기자협회)과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기후변화센터)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인우 동문, 기자 생활 33년에 여섯 번째 저서 출간
우리 대학 이인우(신문방송 79) 동문은 1988년 <한겨레> 창간 멤버로 입사해, 편집국 문화부장, 부국장, 기획위원, 자회사 <씨네21> 대표이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편집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겨레> 인쇄를 책임지는 제작국장 보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기자 생활 중에도 꾸준히 책을 써온 이인우 동문은 올해 여섯 번째 책 『음식천국 노회찬』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이 책은 고인이 된 정치인 노회찬이 생전에 친구, 정치 동지 등과 즐겨갔던 식당을 찾아 노회찬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뉴욕동문회 송년 모임 성황 개최
우리 대학 뉴욕동문회(회장 김중호, 독일어 89)가 지난 12월 9일 미국 뉴저지 더 블트리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61학번 졸업생부터 18학번 재학생들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은구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동문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활기찬 동문회 운영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중호 회장은 “우리의 모교 외대가 명문사학으로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선배들 뿐만 아니라 90년대 학번 이후의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안태근(글로벌문화콘텐츠(박) 09)
한중일 영화 100년사
(글로벌콘텐츠)



윤지비(김윤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 09)
버티다 버티다 힘들면 놓아도 된다
(강한별)



김기수(브라질학 12)
어설픔게 어른이 되었다
(가나북스)



이기남(스페인어 09)
송해 1927
(사람의집)



신효정(중국문학전공 09) 譯
도해 타이완사
(글항아리)

Alumni News

HUFS Alumni

2021. 09. 01. ~ 11. 30. 기준

정부기관

언론

공공기관

금융

기업

학계

양성필	영어85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정구용	정치외교92	교육부 강원대학교 산학연구기획과장
박희정	법학93	국인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 팀장
박건수	법학85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완중	영어82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실장
김인호	정치외교87	통일부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장

이성주	독일어84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이상우	경제87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장
이종국	한영(석)89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교류협력이사
이상현	행정85	한국서부발전 기획처장
김경덕	법학99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 의결권기획팀장
김재용	영어89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담보부장
임창균	수학87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일산센터이전추진반장

이슬	경제04	미래에셋그룹 수지WM지점장
----	------	----------------

강성인	경영01	광동제약 세무팀장
조완석	중국85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건설 부사장
이우식	네덜란드어90	롯데그룹 (株)코리아세븐 상무
성경철	아랍어통번역80	한진중공업 사내이사
김상웅	정치외교86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 부사장
강명신	독일어87	LG헬로비전 전무

정윤철	중국어89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
한만춘	러시아85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대학장
류기수	중국어80	한신대학교 국제교류원 원장
김재식	영어교육(석)17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영어교사

Donation News

HUFS Donation



김종호 HK Produce Group 대표이사, 장학생과의 만남

지난 9월 6일 HK Produce Group 대표이사 뉴욕동문회 회장인 김종호(독일어 89) 대표가 학교에 방문하여 HK Produce Group 3기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종호 대표는 2019년 장학생 1기를 시작으로 모교 후배들을 위해 연간 약 2,200만원의 HK Produce Group 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날 김종호 대표와의 만남에는 HK Produce Group 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성식(영어 16), 노정수(중국어외교통상 18), 신다훈(영어 15) 학생이 참석했고, 대외협력처 윤경옥 부처장이 함께 자리했다. 그 외에도 방역지침 상 인원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민교(경영 17), 이은재(스페인어 18), 최별(정치외교 17), 최진행(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 학생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한식당 '광주회관', 학교 발전기금 약정

한식당 광주회관(사장 엄귀순)이 학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추가 약정했다. 과거에도 우리 대학에 1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는 엄귀순 사장은 우리 대학의 더 큰 도약을 지원하며 추가로 1천만원을 약정해 총 기부·약정금액은 2천만원이 됐다. 지난 11월 16일(화)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은 광주회관 엄귀순 사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묵묵히 한국외대의 발전을 응원하며 소중한 기부·약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광주회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귀순 사장은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외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독보적인 대학이며, 한국외대의 목표와 미래 비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캠퍼스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한식당 광주회관은 정갈한 맛과 남다른 정성으로 오랜 기간 외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반대학원 총동문회, 장학금 1억원 기탁

우리 대학 대학원(원장 이재원)은 지난 10월 28일(목) 대학원장실에서 일반대학원 총동문회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원 대학원장은 “모교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한 장학금을 희사한 일반대학원 총동문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은 이재원 대학원장, 김원명 대학원 교학처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일반대학원 총동문회는 지금까지 총 1억1천5백90여 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1.09.01.~11.30. 기준

성명	소속	기부액(원)
강동희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17	20,000
강영남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3	20,000
강지혜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04	30,000
고태수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07	20,000
고해섭	법과대학 법학과 03	60,000
공병훈	법과대학 법학과 01	60,000
곽성희	영어대학 영어과 74	3,360,500
곽태석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10,000
구민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2	30,000
구자철	영어대학 영어과 73	10,081,500
권경집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83	20,000
권기대	법과대학 법학과 94	20,000
권성욱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79	20,000
권영아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20,000
권준호	법과대학 법학과 93	60,000
권혁수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94	150,000
김경민	영어대학 영어과 01	60,000
김기민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90	20,000
김대윤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9	20,000
김대호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91	40,000
김대희	법과대학 법학과 11	60,000
김미경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4	100,000
김범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92	20,000
김병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9	60,000
김상국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84	100,000,000
김상원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20,000
김선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4	40,000
김수봉	일반대학원 국제경영학(박) 11	5,000,000
김수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85	20,000
김송수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7	60,000
김송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3,200,000
김용빈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9	30,000
김용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5	20,000
김용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89	60,000
김용현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9	40,000
김유정	서양어대학 노어과 03	20,000
김유현	법학전문대학원(석) 10	60,000
김은정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94	30,000
김은정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93	20,000
김은지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 04	40,000

성명	소속	기부액(원)
김아선	통번역대학원 한노(석) 16	20,000
김자영	법학전문대학원(석) 11	60,000
김정기	일반대학원 러시아-동유럽지역학(석) 88	20,000
김종윤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90	20,000
김준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93	20,000
김지숙	일반대학원 정보기(목)학(석) 15	30,000
김지은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4	30,000
김지한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04	20,000
김형하	법과대학 법학과 03	20,000
나도연	법과대학 법학과 83	20,000
나인애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20,000
노건엽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9	40,000
노임현	국제학대학 국제학전공 09	30,000
노지영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91	20,000
류동호	법과대학 법학과 89	20,000
류재욱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5	20,000
류재봉	영어대학 영어과 57	30,000
문관식	경영대학원(석) 08	90,000
문환성	법과대학 법학과 98	30,000
민희창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01	20,000
박강식	법과대학 법학과 87	20,000
박남호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92	30,000
박상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93	20,000
박선종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1	20,000
박순원	영어대학 영어과 00	60,000
박원복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9	90,000
박재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3,500,000
박재호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86	20,000
박재홍	법학전문대학원(석) 14	20,000
박지영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99	20,000
배석주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90	40,000
배은경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20,000
부중환	법과대학 법학과 71	20,000
상용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2	20,000
서기원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20,000
서유경	서양어대학 노어과 92	60,000
손세준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05	20,000
송대현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40,000
송민형	법학전문대학원(석) 11	60,000
송배호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90,000

성명	소속	기부액(원)
송진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5	20,000
송철준	영어대학 영어과 74	20,000
신민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7	30,000
신아람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0,000
신용균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박) 19	100,000
신윤경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8	20,000
신윤철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전공 04	20,000
신인선	법과대학 법학과 07	60,000
신정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20,000
신한철	일반대학원 법학(석) 10	20,000
심찬	태국어통번역학과 03	60,000
안상범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98	20,000
양연우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7	60,000
엄용식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3	150,000
엄홍길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2	20,000
오성식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9	100,000
오성진	법과대학 법학과 04	20,000
오윤	법과대학 법학과 03	30,000
오정훈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6	60,000
오창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1	20,000
우재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1	40,000
유근혁	법학전문대학원(석) 11	60,000
유시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20,000
유영미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2	90,000
유재형	서양어대학 노어과 96	20,000
유정은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5	30,000
이동만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3	75,000
이동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1	20,000
이보훈	영어대학 영어과 86	20,000
이상량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67	300,000
이상식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79	90,000
이상원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01	200,000
이서율	경영대학 경영학과 07	1,000,000
이성배	서양어대학 노어과 98	20,000
이수연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20,000
이승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30,000
이승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0	20,000
이성조	서양어대학 노어과 78	20,000
이영도	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81	20,000
이영화	법과대학 법학과 68	30,000

성명	소속	기부액(원)
이옥성	영어대학 영어과 76	40,000
이응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20,000
이용출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2	30,000
이은순	서양어대학 노어과 73	20,000
이장일	법과대학 법학과 88	30,000
이재용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1	20,000
이재호	경영대학원 국제금융학(석) 04	40,000
이재홍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8	90,000
이종섭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0	30,000
이준희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86	100,000
이진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76	20,000
이하나	영어대학 영어과 02	20,000
이현석	법학전문대학원(석) 11	60,000
이혜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91	20,000
이호경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1	30,000
이호용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3	30,000
이희성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30,000
이희원	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전공 06	20,000
임동무	영어대학 영어과 61	30,000
임은숙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3	40,000
임재복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2	30,000
임창균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7	40,000
임효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7	20,000
장윤호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20,000
장일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87	20,000
장지애	통번역대학원 한노(석) 16	30,000
전별	법학전문대학원(박) 15	90,000
전성철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76	150,000
정순자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1	30,000
정승화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30,000
정언웅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1	20,000
정연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20,000
정영조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74	150,000
정재민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1	100,000
정지훈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8	20,000
정혜린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12	40,000
정휘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8	20,000
정희웅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0	20,000
조규태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2	100,000
조기석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8	120,000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1.09.01.~11.30. 기준

성명	소속	기부액(원)
조동식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69	20,000
조성욱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7	100,000
조수연	법과대학 법학과 85	20,000
조용배	영어대학 영어과 85	30,000
조원균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92	20,000
조재원	법과대학 법학과 01	20,000
조종수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전공 09	12,000,000
천부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91	20,000
최경훈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4	30,000
최동규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20,000
최백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05	20,000
최병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30,000
최영규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4	20,000
최은정	영어대학 영어과 92	300,000
최창호	법과대학 법학과 06	20,000
최재선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20,000
최창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89	60,000
최태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0	90,000
최현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83	60,000
추가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04	20,000
하상원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4	100,000
하석근	경영대학 경영학과 95	20,000
하정수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1	20,000
한익섭	영어대학 영어과 05	60,000
함영준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20,000
허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8	60,000
허욱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94	30,000
홍성재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14	20,000
홍영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150,000
홍원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94	30,000
홍의표	상경대학 경제학과 00	30,000
홍정표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70	10,000,000
홍현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2	7,020,000
황송이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05	20,000
황윤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04	20,000
황인자	영어대학 영어과 74	20,000
황현이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10	20,000
Hanafy Shim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150,000
강진석	외대교수	1,000,000

성명	소속	기부액(원)
고영훈	외대교수	1,000,000
고태진	외대교수	30,0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례	외대교수	60,000
권경애	외대교수	400,000
권기수	외대교수	60,000
권영우	외대교수	15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광섭	외대교수	250,000
김민정	외대교수	40,000
김봉철	외대교수	1,270,6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원명	외대교수	150,000
김원호	외대교수	60,000
김유강	외대교수	25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2,190
김인철	외대교수	1,200,00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지현	외대교수	250,000
김진아	외대교수	20,000
김찬완	외대교수	20,000
김태성	외대교수	30,000
김한식	외대교수	30,000
김형래	외대교수	60,000
김혜진	외대교수	120,000
나송주	외대교수	500,000
노명환	외대교수	205,000
명희준	외대교수	10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200,000
박미정	외대교수	30,000
박상미	외대교수	60,000
박중찬	외대교수	150,000
박치완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30,000
송연석	외대교수	30,000
송준서	외대교수	20,000
신근혜	외대교수	428,574

성명	소속	기부액(원)
신정아	외대교수	120,000
안인경	외대교수	7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온대원	외대교수	200,000
왕석동	외대교수	6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윤기현	외대교수	150,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20,000
윤은경	외대교수	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승용	외대교수	200,000
이인섭	외대교수	30,000
이재욱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외대교수	30,000
이지은	외대교수	80,000
이진아	외대교수	2,2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춘호	외대교수	2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2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임일환	외대교수	150,000
장병익	외대교수	300,000
장은영	외대교수	60,000
정혜연	외대교수	30,000
제성훈	외대교수	20,000
조희문	외대교수	150,000
최영수(MS)	외대교수	100,000
최요섭	외대교수	60,000
최우익	외대교수	200,000
최종찬	외대교수	200,000
최철	외대교수	1,200,000
최호성	외대교수	250,000
한원덕	외대교수	3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영	외대교수	20,000

성명	소속	기부액(원)
황성우	외대교수	20,000
황재호	외대교수	60,000
황자연	외대교수	30,000
강덕수	명예교수	20,000
장실	명예교수	20,000
최재철	명예교수	20,000
유정화	퇴직교원	90,000
강미리	외대직원	20,000
김석중	외대직원	50,000
김원범	외대직원	20,000
김현숙	외대직원	120,000
김해정	외대직원	30,000
나영규	외대직원	85,000
문은영	외대직원	40,000
박식원	외대직원	6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윤병호	외대직원	330,000
정용호	외대직원	150,000
최완식	외대직원	600,000
홍순혁	외대직원	30,000
황순규	외대직원	2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4,500,000
CHEMSCHOLARSHIP(화학과학회)	동문단체	600,000
경영85학번동기회	동문단체	1,000,000
일반대학원 총동문회	동문단체	95,677,32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3,365,000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5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477,000
영미문학번역 전공교수 일동	교내단체	3,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2,640,000
단창균	학부교	100,000
유설자	학부교	60,000
이윤경	기타(개인)	2,000,000
형길환	기타(개인)	150,000
광주회관	외대사랑후원업소	200,000
(주)비지메프리테일(CU)	기타(기업)	5,000,000
(주)번에드	기타(기업)	2,700,000
(주)씨에스엘텍	기타(기업)	20,000
(주)체인지포인트	기타(기업)	1,676

성명	소속	기부액(원)
APEX CORP.	기타(기업)	5,000,000
CJ대한통운	기타(기업)	3,360,500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타(기업)	2,000,000
키다리영어	기타(기업)	500,00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식회사	기타(기업)	10,000,000
(재)동화산업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0
(재)삼성꿈장학재단	기타(단체)	15,600,000
(재)발전재단	기타(단체)	700,000
(재)인송문화재단	기타(단체)	8,000,000
(재)케이티그림희망나눔재단	기타(단체)	34,793,5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1,000,000
KRX국민은행재단	기타(단체)	1,500,000
공군사랑부	기타(단체)	3,855,500
금강총서장학재단	기타(단체)	1,500,000
남동소방서	기타(단체)	1,050,3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1,10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3,360,500
도봉소방서	기타(단체)	1,564,670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기타(단체)	25,000,000
백미장학금	기타(단체)	2,0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400,000
성남시장학회	기타(단체)	4,218,500
세아해암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31,778,500
영릉문화재단	기타(단체)	1,800,000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10,5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21,516,000
일산장학회	기타(단체)	2,5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1,200,0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5,4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기타(단체)	11,000,000
철원소방서	기타(단체)	1,126,560
충남 해군 본부	기타(단체)	14,158,000
한국여학사협회	기타(단체)	1,000,000
한불문화재단	기타(단체)	1,000,000
한원장학회	기타(단체)	6,000,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AI시대를 밝히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HUFS 글로벌캠퍼스에서 키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는
AI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위해
SW 산업 현장 체험학습과 SW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글로벌 융합전문가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